



선교소식

◆ **봄 C&MA 선교지 탐방.**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네분의 목사님들이 감독의 인솔로 터키와 키르키즈스탄의 C&MA 선교지를 탐방합니다.

◆ **가을 C&MA 선교지 탐방.** 10월 중에 선교국장의 인솔로 몽골과 대만의 C&MA 선교지를 탐방할 계획입니다.

*일반참가자 \$500 지원. *개척캠프 수료자 \$1000 지원!

◆ **선교사 기회.** 교단 홈페이지(cmalliance.org)의 오른쪽 상단 메뉴 중 Serve를 클릭하면 C&MA 선교사로 참여하는 기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65개의 기회들로 청년부터 장년, 현역과 은퇴한 교역자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저희 선교사님들 지역인 몽골, 타이완, 키르키즈스탄, 터키, 북아프리카 등에도 기회들이 있습니다.

교회 및 교역자 소식

◆ **강남수 담임 목사 취임예배.** 5/6(주) 오후 5시, 뉴저지 만나교회에서 강남수 담임목사 취임예배가 있습니다.

◆ **삼버그한인교회 임직식.** 5/6(주) 오후 4시, 창립 47주년 축하 및 장로 임직식이 있습니다.

◆ **남가주헬로십교회 임직식.** 5/20(주) 오후 5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 **임마누엘선교교회 임직식.** 5/20(주) 오후 4시, 창립 35주년 축하 및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감독 및 총회일정

5/5 임원회(서기, 회계)	5/13 좋은씨앗교회
5/6 강남수 목사 뉴저지만나교회	5/18~20 임마누엘 선교교회
담임목사 취임예배	5/21~6/1 비전트립
	(터키 & 키르키즈스탄)

<중부지역회>

월례회

5/17(목) 오전11시
한인서부교회

<서부지역회>

월례회

5/14(월) 오전11시
주님의손길교회

결혼식

장철 목사님 장녀
5/5(토) 오후4시
The Hideway Place

<서북부지역회>

월례회

5/15(화) 오전11시
시애틀그리심교회



Letter from District Superintendent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35차 연례총회에 모였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쉽고 부족한 부분들조차도 덮여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컸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간증과 말씀과 보고를 통해서 많은 동역자의 사연이 전해졌고, 우리는 함께 기도했고, 뜨겁게 찬양했고, 배웠고, 도전받았습니다. 주관하는 서북부지역회는 이번에 시설, 식사, 수송, 관광, 체육대회, 행사 진행 등에서 거의 완벽하게 준비하였고, 저러다 코피 쏟으며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섬겨주셨습니다. 참석하셨던 한 선교사님은 이번 총회에서 나눔의 힘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의 정신은 동맹(Alliance)이고, 동맹은 강압이 아닌 참여이고, 그래서 우리는 무브먼트이며, 총재의 참석은 우리를 향한 동맹으로의 겸손한 초대였습니다.

저는 이번 연례총회 기간에 고후 4:1-2의 말씀이 우리 중에서 진리인 것을 목격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 연례총회에서 힘든 이민 목회를 감당하고 있지만 낙심하지 않는 동역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숨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동역자들의 모습, 쉽게 가는 유혹을 뿌리치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

DISTRICT STAFF

감독 / 백한영 목사
개척국장 / 이창남 목사
선교국장 / 김경환 목사
MSP국장 / 김진태 목사
사무행정 / 하 늘 목사

DIRECTION

169 MAIN STREET
RIDGEFIELD PARK
NJ 07660
TEL. 201-440-5700
(Korea) 070-5111-6750
koreancma@gmail.com
www.kdcma.org



동역자들의 모습, 인기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동역자들의 모습, 그리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호소하는 동역자들의 평소의 모습을 이번 연례총회에서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것이 조금도 후회되지 않는 자랑스러운 동역자들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한인총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동역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찬하는 것 같아서 좀 어색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익숙해서 잘 안 보이는데 처음인 사람의 눈에는 보인 것 같습니다. 이번 연례총회에 방문자로 참석하셨던 어떤 분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신선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 순수하게 목회하는 목회자들과 정결한 교단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연례총회를 마친 후 3일 동안 감기몸살을 겪는 중에 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 6:9)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기를 포기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거둘 사람들입니다. (8절) 우리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합시다.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욱 착한 일을 합시다. (10절) 우리의 동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목양하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착한 일을 더 많이 합시다. 때는 이를 것이고 우리는 거둘 것입니다.

최근에 비행기에서 'Wonder' 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유전병으로 인해 안면 기형으로 태어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는 어릴 때부터 여러 번 성형 수술을 했어도 얼굴이 괴상합니다. 부모는 어쩔 수 없이 홈 스쿨링으로 아이를 교육하지만, 아이가 5학년이 되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아이를 사립학교에 입학시킵니다. 괴상한 얼굴을 가진 아이는 예상했던 대로 모든 학생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러는 중에도 아이에게 친구가 생기고 아이는 조금씩 학교생활에 적응해갑니다. 유독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옳음과 친절함 중에 선택

을 해야만 한다면 친절함을 선택해라."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생각과 함께 예수님이 그러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연례총회에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담대함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담대함으로 C&MA 선교에 앞장서면 큰 상급이 있을 것을 상기하고 다짐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할만한 사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의 존재 목적을 이룹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서로에게 착한 일들을 더 많이 하는 한 가족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혼자서 교회를 개척하며 고군분투 중인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린하우스 처치가 되어주십시오. 멀리 떨어진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십시오. 그리하는 중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생명을 회복하는 능력으로 결실할 것입니다.

존경하며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과 함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서로에게 친절한 동역자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동역자님들의 가정과 사역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백한영 목사 배상

지역회 모임 및 행사

목양업데이트 소식

총회소식

<동부지역회>
월례회
5/14(월) 오전10시
갯세마네교회
4개교단체육대회
5/21(월) 오전10시
알리폰드파크

<동북부지역회>
월례회 &
무슬렘선교세미나
5/15(화) 오전10시
사랑샘교회
강사: Joshua & Esther
선교사님 부부

◆ **35차 연례총회.** 4월 23일(월) ~ 27일(금)에 서북부지역의 Federal Way에서 120여명의 대의원과 참관인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연례총회에는 순서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잘 준비하고 희생적으로 지원하신 서북부지역회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 **36차 연례총회.** 내년 36차 연례총회는 동부지역회 주관으로 뉴욕에서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일정을 미리 잡아놓으시기 바랍니다.

◆ **사중복음&핵심가치 한글판.** 평신도용 교단 정체성 학습 교재가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 교단 본부에서 C&MA | DNA 시리즈로 출판한 Fourfold Gospel과 C&MA 핵심가치를 한글로 번역하여 합본으로 출판했습니다. 교인들이 이 교재를 공부함으로 C&MA를 알게 되면 교회에 대한 자긍심과 충성심이 커질 것입니다. 교재는 총회 사무실에서 판매합니다.

◆ **상회비와 개척선교비.** 교회가 보내는 상회비와 개척선교비로 총회를 운영하고 총회적인 사역을 합니다. 재정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세워가는 총회입니다.